

트렌드 & 스타일

피부미인 되려면 '자외선 차단'부터
"아낌없이 바르세요"

'자외선 차단제' 알고 쓰자

여름이 다가오면서 자외선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아지고 있다. 자외선은 검버섯, 기미 뿐만 아니라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피부의 적. 대한피부과학회가 지난 10년간 피부질환자를 분석한 결과 야외 활동이 잦은 20~30대 젊은층에서 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외선 차단에 무관심한 남성들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남성들의 경우 피부암환자가 1995년 9명에서 2005년 46명으로 10년 새 5배나 늘어났다.

피부 트러블과 기미 등 얼굴에 보기 싫은 자국을 남길 뿐만 아니라 피부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자외선.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만으로 건강한 피부를 만들 수 있다.

자외선이란?

자외선은 UVA(ultraviolet-A·장파장 자외선)와 UVB(ultraviolet-B·중파장 자외선)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할 때 확인하는 SPF(Sun Protection Factor)지수는 UVB를 말한다.

UVB는 피부의 진피층에 침투해 피부를 그을리게 하거나 주름, 모세혈관 확장, 색소 침착 등을 일으킨다.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SPF지수가 커질수록 자외선 차단 시간이 길어진다. 하지만 SPF보다 더 위험한 것이 UVA. UVA는 피부의 기저층 깊숙이 침입해 피부 세포를 파괴하고 흉터와 수포를 가져오는 선반(햇빛에 의한 화상)현상까지 가져오는 등 피부에 악영향을 미치는 가장 유해한 자외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SPF지수가 높은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다. 반드시 UVA차단 지수를 확인해야 한다. PA+, PA+++, PA++++ 등으로 표시되는 UVA차단지수는 +표기가 늘어날수록 효과가 크다는 것을 뜻한다.

자외선 왜 쬐지 않겠는가?

평소에 피부가 건강하다고 여겼던 사람들도 태양광선이 강해지는 5월부턴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야 한다. 자외선은 피부 노화, 피부암, 색소 침착, 기미 등을 가져오는 주요인이기 때문이다. 일생 동안 쬐 자외선의 총량 중 80%가 18세 이전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나이가 어리다고 안심해서는 안된다. 특히 피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자외선은 '독'이나 마찬가지다. 저항력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화상을 입거나 염증이 생기기 쉽다.



피부노화·기미 주원인...피부암 유발도
외출엔 선글라스·모자로 노출 최소화
차단제 UVA지수 꼭 확인후 구입해야

여름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외선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을 뿐더러 색소침착을 일으켜 여드름 자국이 보기 싫게 남게 된다.

자외선 예방법

자외선이 강해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는 되도록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외출시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주거나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해 노출을 최소화한다.

오랜 시간 야외활동을 해야 할 때는 SPF 30이상의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도록 한다. 보통 자외선 차단제의 특성은 자외선 차단제 2mg/cm 두께로 도포하여 측정된 값이므로, 확실한 자외선 차단을 위해서는 얇게 바르기보다 여러번 두껍게 바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오성훈 피부과의 오성훈 원장은 "자외선 차단제는 땀 등에 쉽게 씻겨나가는 만큼 차단제를 발랐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된다"며 "높은 차단지수와 자외선 차단제를 한번 바르는 것보다 SPF30 정도의 자외선 차단제를 2시간마다 덧발라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각성정기자 ksj@kwangju.co.kr

대중 찾는 '아티스트'
천·생·연·분
예술 찾는 '패션브랜드'



아티스트와 브랜드 '감각적 소통'

상업적인 브랜드 상품에 전시관에서 볼 수 있었던 예술가의 작품이 사용된다면? 최근 아티스트와 패션브랜드의 만남이 잦아지고 있다. 미술가, 음악가, 팝 아티스트 등 다양한 예술가들의 작품과 디자인을 도입한 브랜드가 늘어나고 있는 것. 또 아티스트가 직접 상품을 개발하고 디자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아티스트가 디자인한 상품은 소비자들에게는 예술작품을 소유한다는 만족감을 주고 브랜드에는 이미지 업그레이드라는 윈윈(win-win)효과를 낳으면서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이같은 만남의 대표적인 경우가 팝아티스트 낸시랭과 손잡은 패션브랜드 '쌈지'다. 낸시랭은 '터부 요기나' 시리즈로 주목받은 신세대 아티스트. 파격적인 퍼포먼스와 독특한 예술세계로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쌈지의 '디자인 바이 낸시랭'은 낸시랭이 직접 쌈지의 모델과 아트 디렉터, 디자이너로 나서 낸시랭의 개성이 그대로 담긴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쌈지는 '아티스트 퍼처링 브랜드'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단순히 작가의 작품을 디자인에 반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작가가 직접 모델, 디자인 기획, 개발까지 담당하는 등 대상과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시계브랜드 스와치와 피카소, 백남준 등 예술가와의 공동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고, 만화같은 캐릭터를 이용한 작품으로 키치(kitsch)미학의 대가로 불리는 일본 아티스트 다카시 무라카미는 명품 브랜드인 루이비통과 손을 잡고 '무라카미 라인'을 디자인하기도 했다.

레스포삭도 가수 '그웬 스테파니' 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를 영입해 매년 새로운 라인을 전개해오고 있다. 이번 시즌에는 일본의 사이먼 레그노의 동양적인 일러스트가 그려진 '도키도키'라인을 선보였다.

쌈지의 천호균사장은 "젊고 실험적인 작가의 에너지 넘치는 색다른 시각과 젊은 패션 감각이 어우러져 디자인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고 있다"며 "새로움을 찾는 디자이너와 대중을 찾아가는 아티스트의 만남은 전생연분처럼 속물적이다"고 말했다.

각성정기자 ksj@kwangju.co.kr



낸시 랭, 쌈지와 손잡고 모델·디자이너로 맹활약
무라카미·루이비통, 그웬 스테파니-레스포삭 호출



엘지공인중개사
T.019-616-2353
011-601-8230
화순 도곡온천 단지내 최고 성업 중인 무인텔
롯데백화점부근 상업용지
총장로 4기 5층 상가
쌍춘동 동림지구와 버들마을 사이
쌍춘동 광천교회 부근
양동 상업지역 고급주택
화정동 신동아와 대주 사이
양동시장과 서부경찰서 사이 내지
도산동 파랑새에식장 건너편
5층 상가건물
전원주택지

유성공인중개사
(02)352-4545, 364-4545
광천동개발지역
주택상기등 물건다수보유
1010-4610-5631
모텔급매
객실 42개
최신시설
월매출 5천만원
웅자 12억
매 25억
016-605-7000

LC타워(주)
(02)872-8004, 010-7154-6866
첨단지구내 최상의 위치
LC타워를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이상
3층 212평 88평
4층 300평 30평 47평
5층 222평 114평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1-638-2656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광주 시내 토지(면적이나 금액에 상관없음)
기도원 부지: 장성,담양,화순 2만평이상
정성 전문면 도로에 접한 생산녹지-현금2억
병원 신축부지: 면적 가격은 물건 검토시 결정

21세기부동산개발(주)
호남대표부동산! (02) 525-0021, 천절삼담 011-612-3421
AA급 깨끗한 길을 긴급 매각
21세기부동산 개발(주)
21세기부동산 개발(주)
21세기부동산 개발(주)

대인동삼일부동산
(02)220-1140, 020-8011-002-2522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울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